



오재원

막바지 프로야구 FA 시장, 오재원 제외 4명 '장기전 양상'

오재원, 두산 잔류 대략적 합의...김태균·손승락·오주원·고효준은 온도 차

프리 에이전트(FA) 시장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5명이 시장에 남아 있는 가운데 두산 베어스와 대략적 합의를 마친 오재원을 제외하면 장기전이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개장한 2020년 FA 시장. 11월 13일 이지영이 3년 18억 원에 키움 히어로즈와 계약하면서 1호 계약자로 기록된 뒤 12월까지 19명의 FA 신청자 중 6명만 새해를 맞기 전 계약을 마쳤다.

2020년 새해가 밝은 뒤로는 계약 소식이 속속 들려오고 있다. 지난 6일 안치홍이 KIA 타이거즈에서 롯데 자이언츠로 이적(2+2년 최대 56억원)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던졌고 전준우(4년 34억원)와 김선빈(4년 40억원)도 롯데와 KIA에 각각 잔류했다.

지난 18일에는 '알짜 포수 자원'으로 평가받던 김태균이 4년 최대 13억원에 NC 다이노스와 계약했다. 내신 20~30억원대 계약을 완수했던 김태균이지만 얼어붙은 시장 상황 속에 더 버티지 못하고 사인했다.

이제 시장에 남아 있는 선수는 오재원(36)을 비롯해 김태균(38), 손승락(38), 고효준(37), 오주원(35) 등 5명이다. 오재원의 경우는 두산 구단이 "계약기간 3년에 합의했고 연봉과 옵션 등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조만간 계약이 성사될 전망이다.

김태균, 손승락, 고효준, 오주원은 30대 중후반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타구단 이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상선수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들을 영입하려는 구단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 소속구단과 협상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온도 차가 있다.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한화 이글스의 프랜차이즈스타 김태균이다. 김태균은 한화의 영구결번도 유력한 선수다. 조건과 시기가 문제지 계약이 불발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정민철 한화 단장은 "구단의 뜻을 전달했고 현재 합의점을 찾기 위한 시간을 갖는 중"이라며 "김태균은 팀에 꼭 필요한 선수다. 나이라는 선

입견이 있어서 그렇지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선수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김태균과 반드시 계약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베테랑 불펜 투수 손승락과 오주원도 김태균과 비슷한 상황이다. 손승락은 롯데, 오주원은 키움 히어로즈에서 불펜의 주요 전력. 원 소속구단이 계약을 원하지만 큰 금액을 지불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적지 않은 나이도 선수에게 불리한 조건이다.

고효준의 경우 원 소속구단 롯데를 떠날 가능성도 있다. 롯데 관계자는 최근 "고효준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만약 다른 구단이 영입 의사를 드러내면 사인 앤드 트레이드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0개 구단은 오는 2월 1일 일제히 스프링캠프를 시작한다. 캠프 출구일은 이달 30일 또는 31일이다. 지난해 김민성은 원 소속구단 키움과 계약에 이르지 못해 개인 훈련을 진행하다 3월이 돼야 사인 앤드 트레이드로 LG 트윈스 유니폼을 입었다. 이번에도 김민성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남자 핸드볼, 아시아선수권 8강 진출...조 예선 1승1패

19일 사우디아라비아전 패배...앞서 호주전 승리

남자 핸드볼 대표팀이 1승1패 조 2위로 아시아선수권 8강에 진출했다.

강일규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핸드볼 대표팀은 19일(한국시간) 쿠웨이트에서 열린 제19회 아시아 핸드볼 선수권대회 C조 예선 2차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27-

29로 패했다. 전반을 앞섰지만 후반 주도권을 내주며 2골차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다.

앞서 호주를 꺾었던 한국은 1승1패로 C조 2위를 마크하며 8강 진출에 성공했다. 2승의 사우디아라비아가 조 1위를 기록했으며 호주는 2패로 탈락했다.

총 13개국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4개조가 조별리그를 진행한 뒤 각조 1,2위 8팀이 다시 한번 결선 리그를 벌여 4강을 가리는 방식으로 펼쳐진다. 한국이 4강에 오른다면 내년 이집트 세계선수권 출전 자격을 획득한다.

한국은 결선리그 2조에 포함돼 카타르, 쿠웨이트, 이란과 상대할 예정이다.

뉴스1

KIA "기회의 문 활짝 열렸다"

플로리다 테마 '젊음의 용광로' 내달 1일부터 시작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렸다. KIA 타이거즈가 2월 1일부터 플로리다 스프링캠프를 차린다. 선수만 54명, 코치진 20명이 참가한다. 사실상 재할군과 일부 신인들을 제외하면 1군과 2군 선수들이 거의 참가하는 역대급 규모의 캠프이다. 캠프를 돕는 프런트 직원까지 합하면 80명이 넘는다.

새로운 외국인 사령탑인 맷 윌리엄스 감독에게는 선수들의 기량 파악이 첫 번째 숙제이다. 옥석을 골라내고 짜임새 높은 야구를 구상하는 캠프이다. 선수들은 윌리엄스 감독과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이다.

과연 메이저리그 출신 감독은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것인지 관심이 높다. 아울러 캠프 테마는 '젊음의 용광로'이다.

마운드는 이미 젊은 선수들 위주로 열개가 짜여졌다. 에이스 양현종을 필두로 애런 브룩스, 드류 가논의 두 외국인 선발전에 자리를 잡는다. 남은 두 자리를 놓고 젊은 투수들이 임기영, 박준표, 박

진태, 차명진, 홍건희, 김기훈, 이민우 등이 경쟁을 벌인다. 전상현, 하준영, 문경찬의 필승조는 구축되어 있다.

남은 선발자원과 이준영, 홍상삼, 고영창 등이 지원군이다. 속세는 젊은 타자들의 경쟁력을 키워내는 작업이다.

KIA는 2017년 우승 타선이 해체 과정에 있다. 1번타자로 활약했던 이명기가 작년 NC로 트레이드 이적했고 이범호는 은퇴했다. 안치홍도 FA 자격을 얻어 롯데 유니폼을 입었다. 김주찬(39), 최형우(37), 나지완(36)도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김주찬은 지방종 제거수술과 재활을 하느라 캠프에 불참한다.

다급한 곳은 중심타선이다. 안치홍의 이적으로 당장 클린업트리오를 누구로 구성할 것인지도 몰

음표이다. 캠프에서 최형우, 터커와 짝을 맞추는 타자를 찾아야 한다. 후보들인 김주찬의 개막전 출전 여부는 재활에 따라 유동적이고, 나지완의 재기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역시 지켜보아야 한다.

젊은 얼굴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스프링캠프에서 나지완과 재기와 함께 이우성, 황대인, 박진두, 오선우 등 젊은 거포들이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입단 이후 4년째 주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최원준의 도약도 키포인트이다. 인상적인 타격을 했던 유민상도 주전에 도전하고 있다. 그동안 백업요원 혹은 2군에서만 뛰었지만 자리가 생기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민과 홍종표 고졸투키 내야수를 포함한 것도 눈에 띈다. 안치홍이 떠나면서 KIA 내야진은 새롭게 짜야 한다. 두 선수는 2루와 유격수 후보로 수비력을 갖추었다. 주전 유격수를 다투는 박찬호와 김선빈의 포지션에 따라 2루 혹은 3루수가 필요하다. 두 신인의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황윤호, 최정용, 고장혁, 김규성 등 젊은 백업요원들도 경쟁 대열에 나섰다.

이런 점에서 플로리다 캠프는 젊은 선수들에게는 기회의 장이다. 안치홍에 이어 노장 선수들도 조만간 자리를 비우게 된다. 젊은 선수들의 눈빛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윌리엄스 감독도 많은 기회를 주겠다고 공언했다. 타선에서 전면 리빌딩의 기운이 강하게 피어오르고 있다. 벌써부터 젊은 선수들의 용광로 캠프를 예고하고 있다.

'배추보이' 이상호, 슬로베니아 월드컵 스노보드 9위



'배추보이' 이상호(25·하이원)가 슬로베니아 월드컵에서 9위에 올랐다.

이상호는 19일(한국시간) 슬로베니아 로글라에서 열린 2019-20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월드컵 남자 평행대회전에 출전해 8강 진출에 실패했다. 예선 기록이 좋았으나 16강에서 불의의 탈락을 맞았다.

예선에서 1분02초54를 기록한

이상호는 3위로 16강 토너먼트에 진출했다. 그러나 16강에서 아론 마치(이탈리아)에게 0.17초 차이로 패하며 탈락하고 말았다.

지난 대회 호조를 이어가지 못했다. 이상호는 지난달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에서 열린 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 자신의 통산 월드컵 메달 수를 3개로 늘린 바 있다.

뉴스1

'사인 훔치기 논란' 휴스턴, 2월4일까지 감독 선임 나선다

'사인 훔치기' 논란에 연루된 감독과 단장을 모두 해고한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다음달 초까지 새 감독 선임에 나설 계획이다.

미국 스포츠매체 ESPN은 18일(한국시간) 휴스턴의 구단주 짐 크레인인 2월 4일까지 새 감독 선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월 중순 스프링캠프를 시작하

는 휴스턴은 새 감독과 단장 찾기에 열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크레인 구단주는 이번주에만 여러 명의 후보들과 인터뷰를 진행했고 앞으로 몇몇 후보들을 대상으로 추가 인터뷰를 볼 것이라 설명했다.

다만 그는 명예의 전당에 입회한 크레이그 비지오의 차기 감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크레인 구단주는 단장과 감독이 모두 해고된 이후 비지오를 비롯해 휴스턴의 간판 선수였던 제프 배그웰, 랜스 버크먼 등과 통화를 하고 이들이 무슨 일인지 듣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뉴스1